

민족대단결의 역사와 더불어 빛나는 불멸의 업적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몸소 마련하신 혁사적인 죽임협의회 6·3躲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전과 신양에는 관계 없이 누구나 사령의 품에 암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내세워주시면 못 잊을 혁사의 희족을 승용한 추억속에 되새겨본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의지를 부여하시고 북과 남, 해외의 통일역량을 둘러세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셨다.』

주제 37 (1948) 년 5월 2일이었다.

혁사적인 4월 남북련석회의를 성과적으로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대표들과 함께 나루배를 타시고 쑥섬으로 향해 하시였다.

아버지 수령님을 모시고 각계 인사들이 한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가는 모습은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장을 열치며 창창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새 조선의 참모습이었다.

쑥섬을 가까이 할수록 섬의 이름다운 경지에 남조선대표들은 감탄을 금지 못하였다. 그려 그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이곳에 휴식처를 꾸려놓으면 인민들이 많이 찾아와 즐길것이라고 또겁게 말씀하시였다.

언제나 인민들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된 그들은 흥분된 심정들을 터놓으며 인민의 학원으로 전변될 평양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어느덧 나루배가 쑥섬에 다달았다.

두루섬과 나란히 있는 쑥섬은 말그 대로 절경이었다.

일만가지 꽃들이 향기를 풍기고 늘 어진 수양버들이 봄바탕에 춤을 추는 섬에서 풍기는 쑥냄새는 싱그러운 향취를 자아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행과 함께 풍만하게 자리를 벤친 버드나무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오늘도 혁사의 증전자마냥 버드나무는 잊지 못할 그날의 사연을 전하며 푸르러 살례이고 있다.

버드나무가 서느럽게 그늘을 드리워 주는 곳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남조선대 표들이 빙 둘러 앉았다.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했던 남조선대 표들과 전현한 혁사적인 죽임협의회는 바로 이렇게 전진해 왔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서 할 일들이 많은데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겠는지의 눈들을 해보자고 하시면서 격식없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한없이 소탈하신 풍모에 완전히 매혹된 대표들은 투정천략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들 모두는 숭고한 민족애와 넓으신 도량이 넘치는 수령님의 통일전선사상을 가슴속에 새기며 한때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속옹이를 풀고 편협작의의지를 더욱 굳게 다듬었다.

협의회를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참가자들을 위하여 대동강의 이를난 물고기로 어죽을 주도록 하시였으며 그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도 준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식사에 앞서 남조선대 표들이 이제 떠나가면 어려운 일들을 벌려야 하겠는데 통일위업을 위하여 부디 건강하기를 축원하여 축배를 들자고 하시였다.

남조선대 표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인품과 너그러운 포옹력, 소탈한 풍모에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혹되었다. 위인에 대한 매우 존중하는 마음을 넣기

고결한 인품에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자체으로 죽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김구는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의 생각이 옹졸하였다고 사파의 말씀을 드렸다. 다른 대표들도 저마다 위대한 수령님께 알고싶던 문제들을 스스럼없이 물기도 하고 가슴속에 품고 있던 견해들을 숨김없이 터놓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시며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을 명철하게 가르쳐주시고 제기된 의견을 공정해주기도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남조선에서 조성된 정세에 맞게 각종 투쟁 형태들을 배합하여 어떻게 신축성 있는 활동을 할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서 할 일들이 많은데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겠는지의 눈들을 해보자고 하시면서 격식없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한없이 소탈하신 풍모에 완전히 매혹된 대표들은 투정천략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들 모두는 숭고한 민족애와 넓으신 도량이 넘치는 수령님의 통일전선사상을 가슴속에 새기며 한때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속옹이를 풀고 편협작의의지를 더욱 굳게 다듬었다.

협의회를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참가자들을 위하여 대동강의 이를난 물고기로 어죽을 주도록 하시였으며 그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도 준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식사에 앞서 남조선대 표들이 이제 떠나가면 어려운 일들을 벌려야 하겠는데 통일위업을 위하여 부디 건강하기를 축원하여 축배를 들자고 하시였다.

남조선대 표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인품과 너그러운 포옹력, 소탈한 풍모에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혹되었다. 김기병

마련이다. 김구, 김규식을 비롯하여 죽임협의회에 참가한 남조선의 대표들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대단결의 중심으로, 민족의 최고령도자로 우러러 경모하면서 그이께서 밝히신 조국통일방략에 따라 싸울 결의를 다지였다.

참으로 죽임협의회는 정전과 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애국애족의 리념에 한자리에 모여 애국애족의 헌신을 통해 통일전선을 형성할수 있고 통일 성업에도 이바지 할수 있다는 확신을 파시한 혁사적인 모임이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천출위인의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을 심장에 새기기 위해 쑥섬으로는 사람들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그들 모두에게 쑥섬은 류나를 강회와 정서를 안겨준다. 대동강의 바람결에 실려오는 불님의 풍향기와 나무가지마다에서 저저귀는 새들의 아름다운 노래소리, 그속에 잠자고 강변에 펼쳐진 수려한 풍치를 부감하느라 누구의 얼굴이나 밝은 미소가 피어난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혁사의 마음과 마음이 여기에 모여드는 것은 섬의 특이한 정서때문이 아니다. 이곳은 우리 민족의 통일전선사에서 영원히 빛날 끝없는 장이 마련된 스승의 땅이기 때문이다.

정녕 혁사의 땅 쑥섬은 오늘도 한평생을 위하여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헌신과 헌혈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있다.

수십년전의 그날 쑥섬에 새겨진 불멸의 사적은 절세의 위인을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으로 높이 떠나보이시는 길에 우리 민족의 무궁번영이 있고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혁사적사실로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정녕 혁사의 땅 쑥섬은 오늘도 한평생을 위하여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헌신과 헌혈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있다.

수십년전의 그날 쑥섬에 새겨진 불멸의 사적은 절세의 위인을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으로 높이 떠나보이시던 때의 일이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이며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에 대하여 주제적으로 높이 떠나보이시던 때의 일이다.

그려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군인들을 보면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더욱 훌륭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일당백의 훌륭한 군인들이 일당

각 지 5. 1 절 을

【평양 5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 드높이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각지 근로자들이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정질인 5. 1절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이 세상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선군조선의 사

회주의 근로자로 보람찬 삶을 누리는 크나큰 행복과 궁지가

그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고 있다. 수도 평양과 지방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공원, 유원지들은 명절을 즐기는 근로자들로 흥성이었다.

평양시내 근로자들은 풍치수 련한 모란봉, 풍라도, 대성산 유원지 등에서 체육유호오락경기, 흥취나는 춤판과 공연무대

는 인민으로, 선군조선의 사

회주의 근로자로 보람찬 삶을

나누는 크나큰 행복과 궁지가

그들로 명절의 하루를 기쁨속에 보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최첨단돌파

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보여드

리는 영광을 지닌 김책체육현

합기기업소와 통성기계련합기

소의 로동계급은 더 높이 비약

할 신심과 타관에 넘쳐 체육유

호오락경기도 하면서 명절을

즐기었다.

2. 8비 날론련합기기업소와

무산광산련합기기업소, 개천지

구란광현련합기기업소, 락원기계

근로자들 뜻 깊게 기념

련합기업소, 신의주화장품공장, 수성천종합식료공장, 혜산발전공장, 개성에 국비복공장, 강제고려야공장에서도 예술소품공연과 축구, 배구, 풍구, 바풀당기기, 씨름 등의 경기가 열렬한 응원속에 진행되었다.

부강조국건설에서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를 남김없이 명예창 의지를 보여주듯 『승리의 5월』, 『돌파하라 최첨단을』 등 경기장에 힘

들었다.

이곳 근로자들은 자방공업체

품생산을 훨씬 늘이고 농업생

산에서 벽력을 이으킬 열의에

넘쳐 애국무를 비롯한 흥겨운

축구를 펼쳐놓고 민족음식품평

회 등도 진행하면서 명절을 즐

겁게 보내였다.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 지식인들도 우리 당의 부

강조국건설구상을 밟들고 최

첨단화학기술의 요새를 점령

해나가는 자랑을 암고 다채로

운 체육문화행사들로 이날을

기념하였다.

5. 1절을 뜻깊게 맞이한

각지 근로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동체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앞

당겨갈 철석의 의지로 가슴

불태웠다.

연예인들은 체육유호오락경기로 5. 1절을 즐겁게 보내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외국인들 본사기자 전성남 적음



다채로운 체육유호오락경기로 5. 1절을 즐겁게 보내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외국인들 본사기자 전성남 적음

년로자들을 위한 인민적시책과 사회적기풍속에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의 요구이며 혁명가들이 지나야 할 숨고한 도덕의 의리입니다.』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와 같은 인민적시책들이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년로자들의 건강과 생활도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고 있다. 그것이 법화한 것이라고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년로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시책의 실시는 오랜 역사로 가지고 있다. 조국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민주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연예인들은 체육유호오락경기로 5. 1절을 즐겁게 보내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외국인들 본사기자 전성남 적음

월한 시책의 하나이다.

우리와 만난 조선년로자보호법 종양위원회 부위원장 리철희동무는 이 년로자보호법만으로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사회적기풍으로, 도의의로 되고 있는 우리 제도의 우월성이 되어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년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연예인들은 체육유호오락경기로 5. 1절을 즐겁게 보내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외국인들 본사기자 전성남 적음

월한 시책의 하나이다.

우리와 만난 조선년로자보호법 종양위원회 부위원장 리철희동무는 이 년로자보호법만으로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사회적기풍으로, 도의의로 되고 있는 우리 제도의 우월성이 되어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년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연예인들은 체육유호오락경기로 5. 1절을 즐겁게 보내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외국인들 본사기자 전성남 적음

월한 시책의 하나이다.

우리와 만난 조선년로자보호법 종양위원회 부위원장 리철희동무는 이 년로자보호법만으로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사회적기풍으로, 도의의로 되고 있는 우리 제도의 우월성이 되어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년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연예인들은 체육유호오락경기로 5. 1절을 즐겁게 보내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외국인들 본사기자 전성남 적음

월한 시책의 하나이다.

우리와 만난 조선년로자보호법 종양위원회 부위원장 리철희동무는 이 년로자보호법만으로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사회적기풍으로, 도의의로 되고 있는 우리 제도의 우월성이 되어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년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연예인들은 체육유호오락경기로 5. 1절을 즐겁게 보내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외국인들 본사기자 전성남 적음

월한 시책의 하나이다.

우리와 만난 조선년로자보호법 종양위원회 부위원장 리철희동무는 이 년로자보호법만으로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사회적기풍으로, 도의의로 되고 있는 우리 제도의 우월성이 되어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년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연예인들은 체육유호오락경기로 5. 1절을 즐겁게 보내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외국인들 본사기자 전성남 적음

월한 시책의 하나이다.

우리와 만난 조선년로자보호법 종양위원회 부위원장 리철희동무는 이 년로자보호법만으로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사회적기풍으로, 도의의로 되고 있는 우리 제도의 우월성이 되어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4월 30일은 조선년로자보호법 중앙위원회 창립기념일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연예인들은 체육유호오락경기로 5. 1절을 즐겁게 보내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과 외국인들 본사기자 전성남 적음

이 역 땅에 매 아리 치는 열렬한 조국 찬가

시련의 광란을 애국의 힘과 용기로 뚫고나가는 채일동포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 있기에 해외동포들의 존엄과 영예가 빛나는 것이며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의의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1일 일본의 도호쿠지방에 사상 류례 없는 대규모의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일본본토를 국토의 혼란상태에 빠뜨린 이 악몽 같은 재난은 세계인들에게 사정 없이 들썩워졌다.

하지만 이 칭포한 자연의 광란속에서도 채일동포사회는 안정을 유지하면서 단합된 힘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있으며 폐지역 동포들속에서는 재생의 기운이 약화되고 있다. 혼란에 빠진 일본사회와는 달리 채일동포사회에 걸쳐져 고 있는 이 놀라운 현실은 어머니 조국의 사랑이 얼마나 따사롭고 은혜로우며 이국의 한마음으로 통일총련과 채일동포들의 불굴의 의지와 동포애가 얼마나 강한가를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재생의 봄, 사랑의 생명수

지진 발생 당일 남재난으로 수 차장이 된 미야기현의 해안도로로 한대의 송용차를 끌고 달리고 있었다.

차안인 폐해상황 보험을 위해 진짜로 바다물이 밀려들어와 출렁이고 있었다. 재난은 동포들의 생활터전을 이처럼 모질게도 야기하였다.

이바리카와 후쿠시마, 이와테 등 다른 지역들에서도 형편은 미친 가지였다. 이바리카와에서는 경설장에서 일하던 두명의 청상회 회원들이 미술을 놓았던 미술관과 둑목히 그들의 장례를 치르려는 총련일군들의 가슴은 미여지는 듯 하였다.

이번에 세 난이 일어난 탓에 채일동포들은 일제식민지 일군과 더불어 일본본토의 일군과 함께 일본을 살피고는 물론 물을 놓았다. 비록 한 마을 안고 둑목히 그들의 장례를 치르려는 일본인들은 총련일군들의 마음속기둥은 고개를 끊었다.

현지에서 그들의 눈앞에 걸쳐진 것은 그야말로 생지옥 같았지만 총련일군들은 차고지 않은 우려로 페리되고 집체같은 파도에 셧겨내려 간 동포들의 살립집들을 그마다 가까스로 서 있는 건물들에는 허리높

『구국전선』 인터네트 사이트에 의하면 민족민주전선(반세민전) 중앙위원회 로농국이 5. 1절에 즈음하여 4월 30일 전국민에게 보내는 격문을 발표하였다.

격문은 다음과 같다.

전체로 동지들이여!

5. 1절이 왔다.

한강토, 한지막으로 잇닿아 있는 이북은 물론 세계 각국의 근로자들이 명절의 분위기 기뻐싸여 있다.

그러나 이남의 로동대중은 오늘도 참다운 로동행방과 생존권쟁취의 구호를 들고 거리에서 일어서 결사항전을 벌리고 있다.

한진중공업과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경향 각지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보수당국과 악덕세력을 상대로 정리하고자 비정규직 철권, 근로조건改善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여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수백일째 계속되고 있는 전주 빙수로조와 쟁차동차로조의 파업은 집회와 시위로 초월하여 목숨을 내건 고공로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투쟁은 계급과 계층을 초월하여 범국민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정부』, 반『한나라당』, 반제별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로동운동단체들과 정치 세력들은 이번 5. 1절을 계기로 수십만 명 규모의 로동자 대회를 통해 강력한 반『정부』, 반『한나라당』, 반제별투쟁의지를 표시할 거기에 넘쳐나고 있다.

료원의 불길마냥 세차게 태반되는 로동대중의 투쟁은 보수당국과 악덕세력들의 반민중적, 반로동자적 성향에 대한 쟁이고 싶은 울분과 항거의 폭발이며 이땅에 기여하는 근로민중이 주인임을 새 정착, 새 생활을 안이오려는 확고한 의지의 분출이다.

이는 이번 투쟁에서 학살한 투쟁을 최루액으로 질식시키고

대, 계속되는 정전과 물자류 통마비 사태는 피해지역 동포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들씌웠다. 바탕세 찬 이역땅에서 부당한 민족적 차별과 광활한 정치적 박해 속에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예상밖의 불행이었고 재난이었다.

하지만 이 칭포한 자연의 광란속에서도 재일동포사회는 안정을 유지하면서 단합된 힘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있으며 폐지역 동포들속에서는 재생의 기운이 약화되고 있다. 혼란에 빠진 일본사회와는 달리 채일동포사회에 걸쳐져 고 있는 이 놀라운 현실은 어머니 조국의 사랑이 얼마나 따사롭고 은혜로우며 이국의 한마음으로 통일총련과 채일동포들의 불굴의 의지와 동포애가 얼마나 강한가를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 소식에 접하게 된 동포사회는 뜨거운 투쟁의 성격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 동포들이 당한 피해를 속속들이 드러내고 사랑의 위문금을 보내주고 있다.

이제나 총련과 채일동포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고자 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강요당하였던 그 비참한 고향에 오늘의 현실은 얼마나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인가.

동포들의 가슴마디에는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높이 모신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 사는 더없는 영광과 행복감이 세차게 물결쳤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집과 재산을 다 잃고 한지에 나았던 이와데현의 한 동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운해로운 사랑이 있어 절대로 비판하지 않는다고,

대지는 흔들려도

일본은 지진이 잦은 나라이다. 때없이 레드로 뒤흔드는 지진으로 하여 일본사람들은 화재적인 우려와 공포를 앓고 살고 있다. 하지만 아우리 대지가 흔들리고 불안과 공포의 회오리가 소용돌이쳐도 어머니 조국을 굳게 믿고사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마음속기둥은 고개를 끊었다.

아버지와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위문금과 일본 각지의 우리 동포들이 마련한 구호물자입니다. 어서 받으십시오.』

제재해 지역의 우리 동포들이 사는 그 어디서나 둘을 수 있는 목소리였다.

잇달오는 여진과 방사동으로 누구도 들어오기 끼려하는 곳에 주저없이 달려와 이처럼 헌신적인 구호활동을 벌리는 총련일군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폐지역 동포들의 마음속기둥은 고개를 끊었다.

『조선신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총련 중앙긴급대책위원회 위원회의 이 호소에 온

동포사회가 호응해 나섰다.

일본 각지의 총련 본부들과

상공회, 혼성동, 조천과

청상회들에서는 폐지역 동

포들에 대한 지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총련은 일본 각지의 동포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있는 것

보다 없는 것이 더 많지만 눈물

보다 웃음이 더 많은 생활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어린 학생들의 이 절절한

눈물을 총련일군들은 총련

과 미조직 동포들의 민족단

합사업도 함께 벌려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과 어머니 조

국에 대한 열렬한 충정, 일침

단결의 힘과 정신력으로 엄혹

한 난국을 타개해나가는 총련

의 이 미더운 모습은 지금 새

상 사람들을 활동시키고

있다. ::

예로부터 재난에 뒤따르는

것은 피눈물과 절망의 아우성

뿐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저

금 제일동포사회에서는 회망

과 희망으로 뒤이어나온 학생들의 모습은 참으로 대견

스러웠다.

『일본 각지의 동포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있는 것

보다 없는 것이 더 많지만 눈물

보다 웃음이 더 많은 생활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나어린 학생들의 이 절절한

눈물을 총련일군들은 총련

과 미조직 동포들의 민족단

합사업도 함께 벌려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과 어머니 조

국에 대한 열렬한 충정, 일침

단결의 힘과 정신력으로 엄혹

한 난국을 타개해나가는 총련

의 이 미더운 모습은 지금 새

상 사람들을 활동시키고

있다. ::

4월 28일 남조선 인터네

트신문 『자주민보』가 이번

보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당선된 투표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이번

선거에서 민심을 뜯어보았

다고 한다고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제민전 중앙위원회로 농국 전국민에게 보내는 격문 발표

보라!

권력의 자리에 앉자마자 『서민을 위한 경제』, 『고용안정』의 낭간지러운 『공약』들을 헌신적처럼 헤버리고 천재로운 『기획』과 『동지』를 이어놓았던 그들이 이제는 헤어놓을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우고 있는 저

『실용』의 악마들을.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제 폐지가 제도로 등을 풀자

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한 보수당파의 비호미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마디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에 세 난이 일어난 탓에 채일동포들은 일본을 더 바빠 조마주를 풀고는 물론 물질과 물질을 놓았던 암울하고

어려울 때 레포트들은 그들이

죽어놓았던 그들이

진정한 인민의 수령,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태양절 기념행사 우리 나라 재외대표부들에서 진행

태양절에 즐하여 카보자, 수리아, 이란, 인디아, 인도네시아, 맨마, 캐스퍼, 영국, 스위스, 프랑스, 베루, 중국, 심양과 홍콩, 로시아, 나호드카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와 제네비에, 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우리 나라 상설대표부,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부에서 3월 3일 일부러 4월 1일까지의 기간에 연회, 집회, 도서,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전개되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영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그리고 강성대국건설에 헌신하신 우리 인민의 투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어 있다.

행사장들은 카보자왕국 정부 국무상, 공공사업 및 운수상, 국회의원들, 프랑스조선친협회 위원장, 프랑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공 및 문화체육발전장협회 위원장, 베루공산당(붉은 조국) 중앙위원회 위원장, 새로운 좌의원동 위원장, 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과 풍서기, 사회혁명당 총비서, 중국 노동당, 성인민대표회 부주임, 심양성인민정부 부비서장, 료녕성인민정부 외사관공동부주임, 료녕대학장, 인민해방군, 료녕성군구 부참모장,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뢰국장, 홍콩주재 중국외교부 페퍼민트, 로씨야연변경찰부, 러시아연변경찰부, 러시아연변경찰부, 일련회, 펜란공산당 연변경찰부, 일상, 하이이슬란드연전기구 위원장, 인더이외무성 동아시아국 국장, 천진리아법률가, 풍서기,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인도네시아 정치안전 및 법률조정상대리, 외무성 아세안

총국장, 민족군 공군사령관, 투쟁민주당, 민주당 지도부성원들, 선봉자당 중앙지도자사부총서기, 너성대회 부위원장, 만체육성 부상, 련평련대성 발전당, 지도부성원들, 캐스퍼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총서기, 헤이보라공산당, 외무성, 공업 및 상업성, 청정민족운동,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총비서, 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대변인(당수),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국제비서, 스위스그리스도교민주인민당 총비서, 국회의원들, 프랑스조선친협회 위원장, 프랑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공 및 문화체육발전장협회 위원장, 베루공산당(붉은 조국) 중앙위원회 위원장, 새운우 좌의원동 위원장, 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과 풍서기, 사회혁명당 총비서, 중국 노동당, 성인민대표회 부주임, 심양성인민정부 부비서장, 료녕성인민정부 외사관공동부주임, 료녕대학장, 인민해방군, 료녕성군구 부참모장,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뢰국장, 홍콩주재 중국외교부 페퍼민트, 로씨야연변경찰부, 러시아연변경찰부, 러시아연변경찰부, 일련회, 펜란공산당 연변경찰부, 일상, 하이이슬란드연전기구 위원장, 인더이외무성 동아시아국 국장, 천진리아법률가, 풍서기,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인도네시아 정치안전 및 법률조정상대리, 외무성 아세안

여러 나라 상임대표들과 린시 대리대표들 그리고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총국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 유럽 지역 주체사상연구회 회장장을 비롯한 국제 및 지역기구 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우리 나라 대표부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카보자공공사업 및 운수상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대원수각하는 일제식 일군들,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총비서, 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대변인(당수),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국제비서, 스위스그리스도교민주인민당 총비서, 국회의원들, 프랑스조선친협회 위원장, 프랑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공 및 문화체육발전장협회 위원장, 베루공산당(붉은 조국) 중앙위원회 위원장, 새운우 좌의원동 위원장, 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과 풍서기, 사회혁명당 총비서, 중국 노동당, 성인민대표회 부주임, 심양성인민정부 부비서장, 료녕성인민정부 외사관공동부주임, 료녕대학장, 인민해방군, 료녕성군구 부참모장,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뢰국장, 홍콩주재 중국외교부 페퍼민트, 로씨야연변경찰부, 러시아연변경찰부, 일련회, 펜란공산당 연변경찰부, 일상, 하이이슬란드연전기구 위원장, 인더이외무성 동아시아국 국장, 천진리아법률가, 풍서기,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인도네시아 정치안전 및 법률조정상대리, 외무성 아세안

투쟁의 가치로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를 높이 모신 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혁명적인 민들의 커다란 변화를 편이어 이룩함으로써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서의 위용을 세상에 펼쳐가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강성대국건설과 나라는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적극 지지할 것이다며 두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여 노력할 것이다.

김일성대원수각하는 일제식 일군들,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총비서, 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대변인(당수),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국제비서, 스위스그리스도교민주인민당 총비서, 국회의원들, 프랑스조선친협회 위원장, 프랑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공 및 문화체육발전장협회 위원장, 베루공산당(붉은 조국) 중앙위원회 위원장, 새운우 좌의원동 위원장, 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과 풍서기, 사회혁명당 총비서, 중국 노동당, 성인민대표회 부주임, 심양성인민정부 부비서장, 료녕성인민정부 외사관공동부주임, 료녕대학장, 인민해방군, 료녕성군구 부참모장,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뢰국장, 홍콩주재 중국외교부 페퍼민트, 로씨야연변경찰부, 러시아연변경찰부, 일련회, 펜란공산당 연변경찰부, 일상, 하이이슬란드연전기구 위원장, 인더이외무성 동아시아국 국장, 천진리아법률가, 풍서기,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인도네시아 정치안전 및 법률조정상대리, 외무성 아세안

투쟁의 가치로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를 높이 모신 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혁명적인 민들의 커다란 변화를 편이어 이룩함으로써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서의 위용을 세상에 펼쳐가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강성대국

건설과 나라는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적극 지지할 것이다며 두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여 노력할 것이다.

김일성대원수각하는 일제식

일군들,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총비서, 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대변인(당수),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국제비서, 스위스그리스도교민주인민당 총비서, 국회의원들, 프랑스조선친협회 위원장, 프랑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공 및 문화체육발전장협회 위원장, 베루공산당(붉은 조국) 중앙위원회 위원장, 새운우 좌의원동 위원장, 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과 풍서기, 사회혁명당 총비서, 중국 노동당, 성인민대표회 부주임, 심양성인민정부 부비서장, 료녕성인민정부 외사관공동부주임, 료녕대학장, 인민해방군, 료녕성군구 부참모장,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뢰국장, 홍콩주재 중국외교부 페퍼민트, 로씨야연변경찰부, 러시아연변경찰부, 일련회, 펜란공산당 연변경찰부, 일상, 하이이슬란드연전기구 위원장, 인더이외무성 동아시아국 국장, 천진리아법률가, 풍서기,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인도네시아 정치안전 및 법률조정상대리, 외무성 아세안

투쟁의 가치로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를 높이 모신 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혁명적인 민들의 커다란 변화를 편이어 이룩함으로써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서의 위용을 세상에 펼쳐가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강성대국

건설과 나라는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적극 지지할 것이다며 두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여 노력할 것이다.

김일성대원수각하는 일제식

일군들,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총비서, 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대변인(당수),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국제비서, 스위스그리스도교민주인민당 총비서, 국회의원들, 프랑스조선친협회 위원장, 프랑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공 및 문화체육발전장협회 위원장, 베루공산당(붉은 조국) 중앙위원회 위원장, 새운우 좌의원동 위원장, 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과 풍서기, 사회혁명당 총비서, 중국 노동당, 성인민대표회 부주임, 심양성인민정부 부비서장, 료녕성인민정부 외사관공동부주임, 료녕대학장, 인민해방군, 료녕성군구 부참모장,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뢰국장, 홍콩주재 중국외교부 페퍼민트, 로씨야연변경찰부, 러시아연변경찰부, 일련회, 펜란공산당 연변경찰부, 일상, 하이이슬란드연전기구 위원장, 인더이외무성 동아시아국 국장, 천진리아법률가, 풍서기,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인도네시아 정치안전 및 법률조정상대리, 외무성 아세안

투쟁의 가치로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를 높이 모신 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혁명적인 민들의 커다란 변화를 편이어 이룩함으로써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서의 위용을 세상에 펼쳐가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강성대국

건설과 나라는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적극 지지할 것이다며 두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여 노력할 것이다.

김일성대원수각하는 일제식

일군들,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총비서, 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대변인(당수),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국제비서, 스위스그리스도교민주인민당 총비서, 국회의원들, 프랑스조선친협회 위원장, 프랑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공 및 문화체육발전장협회 위원장, 베루공산당(붉은 조국) 중앙위원회 위원장, 새운우 좌의원동 위원장, 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과 풍서기, 사회혁명당 총비서, 중국 노동당, 성인민대표회 부주임, 심양성인민정부 부비서장, 료녕성인민정부 외사관공동부주임, 료녕대학장, 인민해방군, 료녕성군구 부참모장,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뢰국장, 홍콩주재 중국외교부 페퍼민트, 로씨야연변경찰부, 러시아연변경찰부, 일련회, 펜란공산당 연변경찰부, 일상, 하이이슬란드연전기구 위원장, 인더이외무성 동아시아국 국장, 천진리아법률가, 풍서기,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인도네시아 정치안전 및 법률조정상대리, 외무성 아세안

투쟁의 가치로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를 높이 모신 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혁명적인 민들의 커다란 변화를 편이어 이룩함으로써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서의 위용을 세상에 펼쳐가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강성대국

건설과 나라는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적극 지지할 것이다며 두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여 노력할 것이다.

김일성대원수각하는 일제식

일군들,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총비서, 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대변인(당수),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국제비서, 스위스그리스도교민주인민당 총비서, 국회의원들, 프랑스조선친협회 위원장, 프랑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공 및 문화체육발전장협회 위원장, 베루공산당(붉은 조국) 중앙위원회 위원장, 새운우 좌의원동 위원장, 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과 풍서기, 사회혁명당 총비서, 중국 노동당, 성인민대표회 부주임, 심양성인민정부 부비서장, 료녕성인민정부 외사관공동부주임, 료녕대학장, 인민해방군, 료녕성군구 부참모장,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뢰국장, 홍콩주재 중국외교부 페페민트, 로씨야연변경찰부, 러시아연변경찰부, 일련회, 펜란공산당 연변경찰부, 일상, 하이이슬란드연전기구 위원장, 인더이외무성 동아시아국 국장, 천진리아법률가, 풍서기,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인도네시아 정치안전 및 법률조정상대리, 외무성 아세안

투쟁의 가치로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를 높이 모신 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혁명적인 민들의 커다란 변화를 편이어 이룩함으로써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서의 위용을 세상에 펼쳐가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강성대국

건설과 나라는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적극 지지할 것이다며 두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여 노력할 것이다.

김일성대원수각하는 일제식

일군들,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총비서, 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대변인(당수),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국제비서, 스위스그리스도교민주인민당 총비서, 국회의원들, 프랑스조선친협회 위원장, 프랑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공 및 문화체육발전장협회 위원장, 베루공산당(붉은 조국) 중앙위원회 위원장, 새운우 좌의원동 위원장, 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과 풍서기, 사회혁명당 총비서, 중국 노동당, 성인민대표회 부주임, 심양성인민정부 부비서장, 료녕성인민정부 외사관공동부주임, 료녕대학장, 인민해방군, 료녕성군구 부참모장,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뢰국장, 홍콩주재 중국외교부 페페민트, 로씨야연변경찰부, 러시아연변경찰부, 일련회, 펜란공산당 연변경찰부, 일상, 하이이슬란드연전기구 위원장, 인더이외무성 동아시아국 국장, 천진리아법률가, 풍서기,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인도네시아 정치안전 및 법률조정상대리, 외무성 아세안

투쟁의 가치로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를 높이 모신 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혁명적인 민들의 커다란 변화를 편이어 이룩함으로써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서의 위용을 세상에 펼쳐가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강성대국

건설과 나라는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적극 지지할 것이다며 두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여 노력할 것이다.

김일성대원수각하는 일제식

일군들,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총비서, 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대변인(당수),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국제비서, 스위스그리스도교민주인민당 총비서, 국회의원들, 프랑스조선친협회 위원장, 프랑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공 및 문화체육발전장협회 위원장, 베루공산당(붉은 조국) 중앙위원회 위원장, 새운우 좌의원동 위원장, 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과 풍서기, 사회혁명당 총비서, 중국 노동당, 성인민대표회 부주임, 심양성인민정부 부비서장, 료녕성인민정부 외사관공동부주임, 료녕대학장, 인민해방군, 료녕성군구 부참모장,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뢰국장, 홍콩주재 중국외교부 페페민트, 로씨야연변경찰부, 러시아연변경찰부, 일련회, 펜란공산당 연변경찰부, 일상, 하이이슬란드연전기구 위원장, 인더이외무성 동아시아국 국장, 천진리아법률가, 풍서기,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인도네시아 정치안전 및 법률조정상대리, 외무성 아세안

투쟁의 가치로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를 높이 모신